

건강 칼럼

갑상선암 치료 방법, 환자 상태에 따라 달라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수술, 항암, 방사선치료부터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실제로 대부분의 암은 암 조직을 서둘러 제거하는 것이 기본적인 치료법으로, 암 발경 후 서둘러 치료를 해야 한다. 하지만 갑상선암은 다르다.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암의 종류와 병기에 따라 수술 진행 여부를 먼저 결정한다. 갑상선암 조직의 크기가 매우 작고 주변에 전이가 되지 않았다면 즉시 수술을 하지 않고 경과를 관찰하게 되며, 크기가 크거나 전이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서둘러 수술을 진행한다.

갑상선암 수술이 필요한 경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행 속도가 빠르고 위험도가 높은 암인 경우, 갑상선암 크기가 1cm 이상인 경우, 갑상선암 크기가 작다 하더라도 주변 조직에 암세포가 침범한 경우, 림프절 전이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이 있다. 암의 종류와 병기가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수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면 적절한 수술 범위를 정해야 한



하정훈
명륜서울의원 이비인후과 원장

다. 갑상선암 수술은 수술 범위에 따라 반절제와 전절제, 림프절 절제 등으로 구분된다. 반절제는 말 그대로 갑상선 조직의 절반을 제거하고 나머지 절반을 유지하는 방식인데, 염절제라고도 불린다.

전절제에 비하면 합병증이 생길 우려가 적고 출혈, 성대마비 등이 발생하는 빈도가 전절제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다만 반절제를 하게 되면 갑상선암 재발을 줄여주는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할 수 없다.

갑상선 전절제술은 갑상선 조직을 모두 제거하는 방식으로, 수술 후 필연적으로 갑상선호르몬제를 이용한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혈액검사 만으로도 갑상선암 재발 여부를 손쉽게 추적 관찰할 수 있으며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진행할 수 있어 갑상선암이 재발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결국 갑상선암 수술 후에도 방사선 요오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절제를 진행하게 되며, 갑상선암 재발 가능성이 낮아 방사선 요오드 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상황이라면 반절제를 선택하게 된다.

림프절절제는 림프절 전이암을 치료하는 수술로, 일반적으로 수술 전에 림프절 전이가 확인된 경우에 갑상선 전절제술과 함께 시행한다.

림프절 전이 여부는 초음파 검사와 세침흡인검사, 갑상선글로벌 단백질 검사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갑상선 전절제술과

광범위 림프절절제를 같이 시행하게 될 경우, 수술 범위가 일반적 갑상선암 수술에 비해 넓어지기 때문에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도록 매우 섬세한 슬기가 요구된다.

갑상선 여포암 같이 수술하기 전에는 암 자체를 진단할 수 없는 갑상선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진단 목적의 갑상선 반절제술을 시행한다. 수술 후 갑상선암으로 진단받은 후에는 그 갑상선암의 심각성을 조직검사와 유전자 검사로 확인하고 추가 치료 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 추가치료는 방사성요오드 치료인데, 이 치료를 하려면 남아 있는 갑상선염을 먼저 잘게하는 수술을 해야 한다. 다만 이렇게 추가치료가 필요한 여포암은 흔하지 않다.

이처럼 갑상선암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수술의 필요성부터 수술의 종류, 재발 가능성까지 모든 점이 달라지게 된다.

다양한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치료 계획을 수립, 실천할 수 있는 의료진과 의료기관을 선택해 건강을 지키기 바란다.

사설

개 식용금지법 통과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증식,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을 어길 경우 발생하는 벌칙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날부터 적용된다.

국회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재석 210명 중 찬성 208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 사육 농장주와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고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고한 업자의 폐업과 전업을 지원 하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됐다. 사육·도살·유통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 유예기간을 줬다.

동물단체들은 “생명 존중을 향한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렸다”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개의 지위는 감정을 교류하는 가족 같은 존재이면서도 식용으로 희생당했다.

이제는 반려견 친화적인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게 됐다는 평이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농장에서 식용으로 길러진 개가 52만 마리가 넘는다. 법안 시행 전까지 3년의 유예기간 동안 이 개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할 것이다.

농장에 있는 개들을 구조하고 보호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앞으로 3년 동안 개 식용 종식이 완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이 적극 협력하기 바란다.

전북출신 배우 장진영 기부

전주 출신 영화배우 고(故) 장진영(1972~2009)을 기리는 장학회가 청송을 받고 있다. 고(故) 장진영의 아버지 장길남 이사장은 지난 2010년 3월 딸의 뜻을 기리며 11억여 원을 털어 계양장학회를 설립했다.

그 뒤 딸이 생전에 펼친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학교법인 우석학원은 인재 양성에 힘써 달라며 장길남 계양장학회 이사장이 사재 5억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부식에는 전 진(유아특수교육과 4) 학생을 비롯 이민주(특수교육과 4), 김형욱(보건의료경영학과 3), 송지현(작업치료학과 1), 한수인(심리학과 1) 학생 등에게 장학금 100만원씩을 수여했다.

서장훈 우석학원 이사장은 “소중한 뜻에 걸맞게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고, 지역의 큰 일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 장진영 배우는 1972년 전북 임실에서 태어나 전주에서 자랐다.

그는 1993년 미스코리아 충남 진으로 입상해 모델 활동을 하다 1997년 드라마 ‘내 안의 천사’로 연기자로 데뷔했다.

장진영은 영화 ‘반칙왕’, ‘국화꽃 향기’, ‘싱글즈’,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청연’ 등에서 주연을 맡아 인상 깊은 연기를 펼쳤다. 그러나 위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2009년 향년 37세로 세상을 떠났다.

한편 우석학원은 장길남 계양장학회 이사장의 뜻을 기리고자 전주캠퍼스 교양관 1층 지역 협력 세미나실을 ‘계양장길남 홀’로 명명했다. 그리고 매년 장진영 추모관 헌화와 편지쓰기 등의 행사를 열고 있다.

우석학원이 계양장학회를 통해 학생 교육과 지역사회 공헌에 앞장서는 학원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군중에 인사하는 프레데릭 10세 덴마크 국왕 부부



프레데릭 10세(왼쪽) 덴마크 신임 국왕이 14일(현지시각) 코펜하겐의 크리스티안보르 궁전 발코니에서 메리 왕비와 함께 군중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이날 즉위한 프레데릭 10세 국왕은 “내가 받은 신뢰에 보답하고 싶다”라며 “나의 희망이자 평생을 바쳐 온 국제는 통합의 왕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꺾고 스페인 슈퍼컵 정상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14일(현지시각)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KSU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4 스페르코파 데 에스파냐(스페인 슈퍼컵) 정상에 올라 트로피와 함께 환호하고 있다. 레알은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의 헤트 트릭을 앞세워 FC바르셀로나를 4-1로 격파하고 우승, 통산 13번째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